

韓國經濟成長의 類型과 産業構造의 變化

<生産 및 産業構造部門>

朱 鶴 中

韓國開發研究院

近代的 意味에서의 韓國經濟의 發展過程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見解에 따라 그 分析對象의 始發點이 다르다 하겠으나 韓國特有的 歷史의 背景으로 보아 日帝植民地時代부터 解放後 混亂期와 6.25 動亂期까지를 除外한 1954年 以後의 動亂後 復興期에서 出發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겠다. 1954年以後를 研究對象으로 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理由는 分析에 援用 될 수 있는 經濟總量 統計資料가 多少問題點을 안고 있는 系列이 있으나 大體的으로 整備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물론 近代的 經濟發展을 歷史의 特殊性을 勘案하여 歷史의 長期展望으로 보는 것이 보다 所望스럽기는 하나 日帝時의 畸型化된 經濟가 입은 解放後의 政治的 經濟的 混亂과 戰火의 人的 物的 被害는 커다란 斷層을 形成하였으므로 이를 나타내는 보다 客觀的이며 包括的인 經濟總量統計의 推計와 分析이 先行되어 있지 않는 現時點에 있어서 거의 不可能한 課題라고 하겠다. 따라서 本研究에 있어서는 6.25動亂以後의 20年間に 걸친 經濟成長을 中心으로 하여 그 要因을 分析하고 이에 따르는 産業構造의 變化를 考察하면서 經濟成長의 類型과 그 特徵을 밝혀 보기로 한다.

1. 國民經濟成長의 趨勢

우리나라 經濟는 氣候條件에 따라 起伏이 심

하여 産業構造上 그 比重이 높은 農業部門의 不規則的인 影響에도 不拘하고 6.25動亂의 終戰과 더불어 꾸준한 成長을 繼續하다가 經濟開發의 體系的인 努力이 傾注되기 始作한 1962年以後부터 그 成長이 加速化하기 始作하였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 年平均 4.2%로 成長하던 GNP는 第1次五個年計劃期間인 1962~1966年間은 年 7.7%로 上昇하였고 第2次五個年計劃期間인 1967~1972年間에는 年 10.7%로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이루었다.

高度成長의 趨勢는 第3次五個年計劃의 1,2次年間에도 繼續되어 年平均 約12.3%를 示顯하고 있다.

그러나 6.25動亂後에 나타난 높은 人口增加率을 勘案한 1人當 GNP의 增加를 보면 1954년부터 1962년까지 불과 年平均 1.26%의 增加를 나타내었고 그 以後 漸減된 人口增加率과 經濟成長의 加速化로 因하여 第1次五個年計劃期間中에는 年平均 4.96%, 第2次五個年計劃中에는 年平均 8.60%로 각각 增加하였으며 근래 第3次五個年計劃의 1,2次年度에는 年平均 10.40%로 1人當GNP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國民經濟成長과 産業別成長率의 趨勢에는 몇 가지 特徵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經濟開發計劃以前의 國民經濟의 成長은 年平均 4.23%로서 開發途上國으로서 작지 않은 成長率이라 하겠으나 그 期間中의 人口增加率을 勘案할 때 1

人當GNP增加率は 12.6%로서 극히 微微한 所得의 增加였으며 五個年計劃의 次數가 거듭됨에 따라 4.96%, 8.6%, 10.4%로 趨勢上昇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成長率의 差異는 比率間의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成長率의 差異를 크게 實減할 수 없으나 1人當 所得이 倍加하는 所要年數를 逆算하여 보면 年平均增加率의 差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즉 4期間의 成長率로서 1人當所得이 倍加하는데 각각 55年, 14年, 8年, 7年. 所要되는 커다란 差異가 있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1次五個年計劃以前의 우리나라 經濟는 1人當GNP成長率로 보아 거의 停滯에 가까운 狀態에 놓여 있었다하여도 過言이 아니며 近代의 意味의 經濟成長은 1963年頃부터 비롯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둘째로 國民經濟成長은 鑛工業部門의 急速한 成長에 의하여 主導되었으며 이를 補完하기 위하여 이에 相應된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成長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後述할 바와 같이 經常GNP構成比로 본 產業構造에 急進的인 變化를 超來하였다. 이와같은 成長類型은 흔히 社會間接資本部門이 成長의 碍路(bottleneck)를 이루는 다른 開發途上國과 對照的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產業構造의 變化에 따라 農林漁業部門의 相對的 比重이 1953年の 47.3%에서 1973年の 25.3%로 減少되었고 이러한 農林水產業部門의 相對的 減退로 因하여 經濟成長率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던 農作物의 豐凶作은 60年代 中半부터 그 影響力이 크게 減少하였다.

2. 經濟成長의 要因

가. 雇傭과 生産性의 寄與

한 經濟의 成長率(G)은 觀點에 따라 여러가지 要因을 抽出할 수 있으나 大川教授와 Rosovsky 教授는 勞動生産性이 一定하다는 假定下에 雇傭增加率(n)과 一人當 生産額의 增加率(g)로 區分하였다.

또한 一人當 生産額의 增加率(g)는 다시 正常的인 勞動生産性向上에 따르는 生産額의 增加率

(gp)과 雇傭構造의 變動에 따르는 增加率(gt)로 細分된다. 이러한 接近方法에 따라 雇傭統計의 一貫性이 比較的 維持되어 있는 1957年以後를 1961年以前, 1,2次五個年計劃期間과 3次五個年計劃期間의 1,2次年度로 區分하여 成長의 要因을 分析하여 要約하면 다음 表와 같다. 먼저 GNP의 平均成長率은 兩次に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 遂行으로 初期의 4.3%에서 1次計劃期間의 7.8%, 2次計劃期間의 10.6%, 3次計劃 1,2次年度의 12.4%로 加速的인 成長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對한 雇傭增加에 의한 寄與는 2次五個年計劃期間까지 대체로 2.1%에서 2.6%로 安定的인 경향이 있으나 3次계획초에 5.2%로 急增하였고 1人當生産額의 增加率은 1次計劃期間以後 5.2%로 부터 8.3%로 높은 伸張率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1人當生産額의 劃期的인 增加率(g)은 低生産部門에서 高生産部門으로의 就業者의 移動에서 오는 1人當生産額의 增加率(gt)이나 就業者의 增大에 따르는 雇傭의 純增加(m)에 起因하였다고 보다는 勞動生産性의 向上에 따르는 生産額增加率(gp)이 1961年以後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1961年 以前의 gp와 gt는 각각 1.4%, 0.8%에 不過하던 것이 1次五個年期間에는 gp는 4.0%, gt는 1.2%, 2次五個年期間中에는 gp는 6.7%, gt는 1.6%, 3次五個年計劃期間中에는 gp는 7.3%, gt는 -0.1%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1次五個年計劃期間의 農林漁業部門의 gp가 例外的으로 높은 것은 同期에 農作物의 作況이 比較的 좋았기 때문이다. 反面 1957年~1961年間 其他 서어비스部門의 負數는 1960年과 1961年の 政治的 不安으로 因한 生産活動의 萎縮에 따라 1人當生産額의 減少에 起因한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1,2次五個年計劃期間의 鑛工業과 社會間接資本部門의 gp는 部門別 雇傭統計가 지닌 問題點으로 因하여 歪曲된 것으로 思料된다. 換言하면 鑛工業部門의 雇傭은 1957~1961年間 年 3.3%로 增加하다가 1次五個年計劃期間에는 年平均 12.7%로 急增하였고 2次五個年期間에는 鑛工

業部門의 成長率은 1次計劃期間의 14.2%에서 2次計劃期間의 20.3%로 一層 增加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同部門의 雇傭增加率은 年平均 8.2%로 오히려 減少하였으며 社會間接資本部門도 同部門의 年平均成長의 增加에도 不拘하고 세 期間에 걸친 年平均雇傭增加率이 각각 11.7%, 3.3%, 12.8%로 극히 變動的인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經濟發展過程에서 資本集約的 또는 勞動集約的 技術의 援用으로 이러한 現象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限界的인 程度로서 平均增加率에 이와같이 큰 隔差를 超來할 程度는 아니므로 이 變動的인 變動은 不安全한 雇傭資料에서 오는 것으로 看做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勞動生產性 向上에 따른 生產增加率(gp)의 產業別 構成은 一貫的인 解釋을 나타내기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分명한 것은 우리 나라의 經濟成長은 1957年以後 年2%를 上廻하는 雇傭增加率을 示顯하면서 높은 勞動生產性 向上에 主導되었고 產業構造의 變化에 따라 1人當 生產額 增加도 漸進的으로 그 寄與가 增大하였다. 勞動生產性 向上에 依한 產業部門別 成長寄與率은 雇傭統計上의 問題點으로 一貫性있는 分析이 나타나지 않으나 어느 程度 資料의 體系가 잡힌 2次5個年計劃을 보면 鑛工業部門과 其他 서어비스部門이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趨勢는 1931년부터 1938年과 1953년부터 1960年間的 日本의 패턴과 類似한 點이 많다.

나. 成長의 產業別寄與

上述한 經濟成長에 對한 產業別寄與를 供給의 側面에서 考察하여 보면 全般的으로 農林漁業部門의 寄與는 豐凶作의 影響을 크게 받아 變化의 幅이 大端히 크다. 特히 1956年의 凶作을 極히 例外的으로서 分析上 相當한 問題를 提示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分析에서는 算術平均値가 極端値에 影響을 받는 誤差를 除外하기 위하여 1956年의 產業別 成長의 寄與率을 除外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農林漁業部門의 成長寄與率은 顯著한 減少를

나타내고 있으며 鑛工業部門은 꾸준한 增加趨勢를 보이다가 1972년부터는 平均 52.1%로 決定的인 要因이 되고 있다. 社會間接資本은 1960年代初半까지 增大하였으나 1960年代後半에는 1% 포인트밖에 增加하지 않았고 3次計劃期間中 多少 減少하였다.

其他 서어비스業의 動向은 部門別成長率의 變動과 같이 1966년까지 增加하다가 그 以後부터는 多少 減少되고 그 以後 相當한 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計劃期間以前에는 農林漁業部門과 其他 서어비스部門이 經濟成長에 60%以上을 寄與하였으나 2次5個年期間에는 鑛工業과 社會間接資本部門이 58.5%, 1971년부터 1973년까지는 68.3%나 寄與하는 變化를 超來하였다. 여기서 分명한 것은 1960年代後半에 이르러 平均的으로 農林漁業部門의 成長에의 寄與가 無視한 程度로 減少되어 前述한 바와 같이 60年代初以前과 같이 豐凶作의 成長率이 決定的인 影響을 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成長에 對한 支出項目別 寄與

國民經濟成長에 對한 寄與를 支出項目 또는 最終需要項目에 따라 다음과 같이 考察할 수 있다. 즉 Y를 GNP, C를 民間消費, G를 政府消費, I를 總投資, X를 輸出, M을 輸入, Δ 를 前年對比增加分이라고 하면,

$$\frac{\Delta Y}{Y} = \frac{\Delta C}{C} \cdot \frac{C}{Y} + \frac{\Delta G}{G} \cdot \frac{G}{Y} + \frac{\Delta I}{I} \cdot \frac{I}{Y} + \frac{\Delta X}{X} \cdot \frac{X}{Y} - \frac{\Delta M}{M} \cdot \frac{M}{Y}$$

의 關係式이 成立한다.

1960年代 以前에 있어서는 成長에 對한 支出項目別 寄與率이 絕對的인 項目이 民間消費支出의 增加이었다. 政府消費支出과 總投資도 약간의 增加로서 寄與한 바 있으나 無視할 수 있는 程度로 低率이며 오히려 輸出의 比重이 더욱 컸고 控除項目인 輸入量의 相對的 減少로 GNP 成長率에 控除項目의 負數 즉 正數의 寄與가 特徵的이라 하겠다.

그러나 第1次 5個年計劃에 突入하면서부터 支出項目의 成長率寄與率은 本質的인 變化를 나타

내고 있다.

첫째는 民間消費支出의 成長寄與率이 第1次 5 個年期間中の 83.4%로 增加하였다가 2次 5個年 期間中の 74.6%와 1971~1973年間的 55.6%로 下落하는 反面政府消費支出이 각각 7.3%와 10.4%로 크게 上昇하였다가 4.7%로 減少하였다.

둘째로 顯著한 寄與率의 上昇은 總投資로서 1961年以前에는 不過 1.2%에 達하던 것이 1961~1966年間에는 27.6%, 1966~1971年間에는 36.0%로 大幅 增加하였다. 1971~1973年間的 4.7%는 1971年의 好況과 1972年의 投資不振에 크게 影響을 입고 있어 큰 意味를 갖고 있지 않다.

첫째로 輸出入의 比重은 共히 急增하고 있으나 輸出의 成長寄與率보다 控除項目인 輸入의 그것이 1971年까지 上廻하고 있는 實情이나 그以後부터는 輸出寄與率이 急增하고 있다. 물론 輸入을 통한 原資材와 資本財供給이 民間消費支出, 總投資 및 輸出等の 寄與率을 改善하는데 現實情으로 보아 不可避하다고 하겠으나 寄與率의 構成을 改善하기 위하여서는 輸入에 依한 寄與率의 控除를 抑制할 必要性이 보인다.

3. 産業構造의 變化

上考한 바와 같이 成長要因, 産業別 成長寄與支出項目別 成長寄與의 差異는 이에 相應하는 産業構造의 變化를 促進 또는 隨伴한다. 여기서는 1953년부터 1973年間に 나타난 우리 나라 産業의 構造的 變動을 概觀하고 난 後 1960年以後 作成된 産業聯關表를 利用하여 Chenery-Clark式의 産業分類에 依한 産業構造의 變化와 産業構造의 變動에 中樞的 役割을 擔當한 工業構造의 變化를 考察하기로 한다.

가. 生産과 雇傭面에서 본 産業構造의 變化

國民經濟의 發展을 時系別로 보아 發展過程에 따르는 産業構造의 變動은 GNP에 대한 産業別 構成比와 産業別 雇傭構成比로 區分하여 보는 것이 通說이다, 즉 農林漁業部門은 1953年 經常 GNP, 47.3%를 占하였다가 1961년에 40.2%,

1971년에 28.9%, 1973년에는 25.3%로 下落이 加速化되는 反面 이와 對照的으로 뚜렷한 增加 趨勢에 있는 鑛工業部門과 社會間接資本部門은 社會間接資本部門의 先行的 急成長에 뒤이어 鑛 工業部門이 後行的으로 急成長하는 패턴을 示顯 하고 있다.

GNP構成比로 본 其他 서어비스理門은 1963年 頃까지 GNP에 對한 構成費가 下降하다가 그 以後에는 약간 上昇한 水準에서 安定되었다가 다시 1971~1973年間に 약간 減少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其他 서어비스業의 雇傭比重은 漸增 되는 傾向이 있고 工業部門에 依한 農村人口의 吸收를 仲介하는 役割을 擧當하고 있는 듯하다. 換言하면 都市로 移轉한 離農人口는 一部 直接 鑛工業部門에 吸收되기도 하나 大部分은 其他 서어비스部門에 吸收되어 就業者構成轉換에 緩衝的 機能을 遂行하고 있지 않나 하는 假定을 設定할 수 있다.

農工間의 隔差의 解消와 같은 이러한 政策的 課題는 鑛工業部門에서 農村人口를 더 많이 吸收하고 農業의 吸收化 등으로 相當한 農業生産性의 向上이 佛行될 때까지 難望할 것이므로 이 問題의 解決點은 高生産性部門에 依한 보다 많은 農村人口의 吸收에서 求하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 構造的 依存性和 産業構造變化

産業別 GNP나 雇傭의 構成은 平面的 産業構造의 變化는 나타내고 있으나 産業間 相互依存性의 深化라는 側面으로 본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直接的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本項에서는 1960年 以後 作成된 産業聯關表를 活用하여 産業聯關係에서 본 産業構造의 變化를 考察하기로 한다.

全産業平均으로 본 中間投入係數(U/X)와 中間需要係數(W/Z)와 個別産業의 中間投入係數(U_j/X_j)와 中間需要係數(W_i/Z_i)와의 關係에서 H. B. Chenery와 P. G. Clark教授는 産業의 類型을 다음과 같이 四分類하였다.

즉 $U_j/X_j < U/X$ 이면 原始産業型,

$U_j/X_j > U/X$ 이면 近代製造業型

$W_i/Z_i < W/Z$ 이면 最終需要型

$W_i/Z_i > W/Z$ 이면 中間需要型으로 分類하여 最終需要的 原始產業型, 中間需要的 原始產業型, 中間需要的 製造業型, 最終需要的 製造業型으로 區分된다. 이 分類에 따르면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時系列로서 U/X 와 W/Z 가 上昇하는 趨勢를 나타내다가 國民經濟가 成熟하여지고 要素價格의 變動에 따라 下降하며 中間需要的 製造業型産業이 차지하는 中間投入과 中間需要的 比重이 增加하는 傾向이 있다.

先進國에 比하면 가령 1955年 日本의 中間投入費 55.5%와 中間需要費 53.0%에 아직 低永準이라고 하겠으나 10年間の 增加推移로 보아 相當한 産業의 構造的 依存性이 深化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中間需要的 製造業型産業의 中間投入이 上昇의 趨勢를 堅持하고 있으며 1970년에 이르러 특히 括目할 만한 것은 最終需要的 製造業型産業이 占하는 相對的 中間投入比率의 急增加이다. 最終需要的 製造業型産業의 總中間需要에 對한 比率는 1966年 以後 큰 變動이 없고 總中間投入에 對한 相對的 比重의 增加는 最終需要 製品産業의 急進的인 發展을 意味한다. 反面 最終需要를 充足시켜 오던 最終需要的 原始産業은 總中間投入에 對한 相對的인 比重이 1966年의 39.2%에서 1970年의 18.4%로 激減됨으로서 그 位置를 製造業型으로 委讓하였다.

끝으로 한가지 注目할 것은 1966年에서 1970年으로의 産業構造의 變化는 工業構造의 高度가 主軸이 되어야 할 産業高度化의 方向에서 多少 離脫되는 感이 있는데 있다. 換言하면 製造業型産業의 總中間投入과 需要的 相對的 比重이 1960年 以後繼續增大 됨으로써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實現되고 있으나 1970년에 이르러서는 最終需要的 製造業型産業의 異例的인 急成長으로 工業構造의 高度化에 寄與하는 中間需要的 諸産業의 相對的 比重이 低下한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1970年代 政府가 計劃 推進하는 重化學工業育成策은 1970年前後에 나타난 産業構造의 不均衡成

長을 是正하기 위한 有義한 政策方向이라 하겠다

다. 工業構造의 變化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經濟의 高度成長은 鑛工業部門과 社會間接資本部門에 의하여 主導되었으므로 이중 重要的 位置를 占하는 工業部門의 成長과 工業構造의 變化를 이 項에서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즉 1956년부터 1961년까지 指數上으로 그 增加가 2배에 未達하던 것이 1961년부터 1966년에는 2배를 超過하고 1966년부터 1971년에는 3배에 가까운 增加를 나타내고 그 以後에도 成長이 加速化하고 있다.

細部的으로 가장 成長이 빠른 部門은 其他製品, 化學製品 및 纖維製品으로서 1965年을 基準하여 1971년에 5倍以上 增加하였다. 1971年 以後 急伸張을 나타내는 製造業部門으로서는 電氣機械器具, 皮革 및 그 製品, 靴類·衣類·裝身品, 輸送用機械器具, 第1次金屬等이다.

問題는 部門間的 成長의 差에서 오는 工業構造의 變化가 과연 우리의 賦存資源과 人口와 所得을 前提로 하여 適正한 工業構造로 指向하고 있는가 또는 이에서 離脫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에 對한 實證的인 研究로서 Chenery와 Taylor教授가 1965年의 資料를 援用하여 韓國을 調査標本에 包含시켜 試圖한바 있으나 包括的인 根據는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研究結果에 依하면 韓國의 人口, 1人當國民所得과 産業發展段階로 보아 1965年 現在 食料品, 飲料品, 煙草, 靴類, 衣類, 裝身品, 皮革製品, 土石 및 유리製品 등은 正常水準以下이며, 纖維, 紙類 및 紙製品, 印刷出版 化學製品, 石油 및 石炭製品, 고무製品 등은 正常水準以上이고 其他部門은 正常永準에 達하고 있다고 하였다.

1965年 以後 部門別 産業指數의 推移로 보아 食料品, 靴類, 衣類, 裝身品, 紙類 및 紙製品, 印刷出版, 고무製品 등은 Chenery와 Taylor教授의 “正常水準”으로 歸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나 輸出需要의 強力한 誘因은 纖維, 製材 및 木製品, 電氣機械器具, 其他 製品 등과 이에 依存도가 높은 石油化學製品 등을 繼續 不均衡한 成長으로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工業部門을 細部的으로 分類하여 國際比較를 試圖한 것이라고 하여도 風俗과 天然賦存資源의 差가 한 部門의 正常水準에 미치는 影響을 감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工業構造의 패턴을 一律的으로 規定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傳統的 産業의 成長과 存續은 二重의 構造로서 特徵지워지는 開發途上國에서 國民貯蓄을 增進시키기 위한 潜在力으로서 評價되는 見解가 있다.

그러므로 正常패턴에서 離脫하는 工業構造를 어떠한 當爲로서 價値判斷하기가 極히 어려운 것이다.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測定하는 보다 一般的인 方法으로서 소위 호프만의 係數가 利用되고 있는데 이것은 工業製品을 生産財와 消費財로 區分하여 이 比率로서 經濟發展段階를 區分한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生産財와 消費財의 區分은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에 國際聯合은 重化學工業 比率로서 호프만의 係數에 代用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 이 分類에 의하면 重化學工業은 製紙, 石油 및 石炭製品, 土石 및 유리, 第1次金屬, 金屬製品, 機械, 電氣機械, 輸送用機械 등을 包含하며 이 以外の 工業은 輕工業으로 區分된다.

1953年以後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比率은 대단한 伸張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도 그 比重이 外國에 比하여 極히 低調한 實情이다.

勿論 우리나라의 輕工業部門이 南北의 分斷으로 因하여 南韓에 集中되어 있었고, 動亂以後 高度成長을 主導한 製造業部門의 發展이 輕工業을 爲主로 한 것이기 때문에 輕工業의 比重이 不均衡하게 큰 것은 事實이나 跛行的 工業構造임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또한 重化學工業比率이 基準年度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物價變動의 오인으로 經常價格系列과 不變價格系列間의 乘離가 심하다.

이와같이 工業構造의 脆弱性은 國民經濟의 自給度에도 反映되고 있는데 SITC分類에 依한 貿易統計資料가 存在하는 1962年以後 1971年間 重化學工業部門의 貿易赤字가 總貿易赤字의 54.0% 내지 75.3%를 占하고 있고 1970年 産業聯關表에는 88.1%로 나타난다. 低調한 重化學工業比率은 Leontief教授의 Sky line圖에서 重化學工業部門이 占有하는 幅이 狹少함이 意味하며 高度의 輸入依存度는 自結을 나타내며 地平線에서 凸凹의 激甚함을 意味한다.

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化學肥料와 石炭製品을 除外한 모든 重化學工業部門의 部門別 自給도가 平均自給度보다 낮으며 部門別 輸入依存度도 全産業의 輸入依存度보다 높다.

그러므로 國民經濟의 自給度を 높이고 貿易赤字를 解消할 수 있는 捷徑은 賦存天然資源面에서 制約이 큰 原資材와 農產物의 增産에 있다기 보다는 重化學工業部門의 振興을 통한 同部門의 自給度向上과 聯關産業의 外貨稼得率提高에 主軸을 두고 前者를 補完策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要約과 結論

1953年以後 우리나라 經濟成長을 概觀할 때 經濟成長趨勢의 뚜렷한 曲折(Kink)이 1960年代初에 나타났고 5個年計劃을 거듭할 수록 加速化되고 있다.

勿論 이러한 現象은 國際情勢나 經濟外的要因으로 한 國民經濟의 成長過程에서 變則的으로 短期的인 現象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우리와 같이 1次5個年計劃以後 10餘年間的 持續的인 高度成長과 長短期 展望은 國際情勢의 變化나 經濟外的 要因으로 因한 偶發的 成長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結果 計劃期間에 걸쳐 2%以上 되는 高率의 人口增加에도 不拘하고 1人當國民所得도 顯著하게 增大하여 왔다.

高度成長을 主導한 것은 動亂後 復興期부터 鑛工業과 社會間接資本部門으로서 60年代에 이르러 이에 誘發된 捕足的일 其他 次要서비스部門

의 成長도 括目할만 하다. 反面 農林漁業部門은 1次 5個年計劃期間에 年 5.3%의 成長을 頂點으로 하여(이것도 2~3年 마다의 週期的 凶作이 이 期間에는 1年 뿐이었음)鈍化되어 가고있다.

따라서 1961년까지 經濟成長에 平均 36.1%나 寄與하던 農林漁業部門을 代身하여 2次5個年計劃期間에 鑛工業과 그 比重이 큰 其他 次要 服務部門이 近 80%의 寄與率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50年代와 달리 60年代 特히 1967年以後에는 豐凶作이 經濟成長을 決定的으로 規定하는 非近代的 國民經濟의 生産體制는 相當한 程度로 拂拭된 것으로 判斷된다.

60年代 高度成長의 要因으로서 雇傭增加보다 1人當 生産額增加가 支配的인 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統計의 性格上 多少의 誤差를 감안한다 하여도 1961年 以前의 年平均 2.2%에서 1次5個年計劃期間의 5.2%, 2次5個年期間의 8.3%의 1人當 生産額의 增加率은 현저한 增加라고 하겠다.

1人當 生産額의 증가에서 雇傭構造의 變動에 따르는 1人當 生産額의 變動을 除外한 純勞動 生産性의 증가도 比較期間에 1.4%에서 4.0%, 6.7%로서 同一한 推移를 示顯하고 있다.

産業別 就業者統計가 지니는 問題點으로 因하여 勞動 生産性增加의 産業別構成은 分析이 대단히 困難하나 2次5個年計劃期間에 이르러 産業部門別 雇傭統計의 偏倚(Bias)가 安定된 것으로 보면 鑛工業部門과 其他 次要 服務部門의 比重이 相當히 높다. 또한 支出項目에 의한 成長의 寄與는 60年代에 있어서 民間消費支出의 顯著한 減少와 總投資와 輸出入의 大幅的인 增大로 特徵지워 지고 있다.

高度成長의 현저한 寄與를 擔當한 鑛工業部門과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急激한 成長으로 國民經濟의 重心이 産業構造의 高度化로 移行하였다.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産業別과 GNP를 雇傭의 構成比로 보나 또는 Chenery와 Clark教授와 産業分類와 그 比重으로 보나 顯著히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 注目할만한 것은 其他 次要 服務部門의 GDP構成比가 相對的으로 減少되는데 反하여 同

部門의 雇傭構成比는 相當한 增加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現象은 失裝이나 農林漁業部門의 僞의 失業을 次要 服務部門에서 一次的으로 吸收하여 鑛工業部門으로 移轉시키는 橋梁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다.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르는 産業聯關係도 60年代를 通하여 漸進的으로 提高되고 있으며 中間需要的 製造業型産業의 比重이 繼續 伸長하고 있다.

1970年 産業聯關係에 의한 産業構造上의 特徵은 最終需要的 製造業型産業의 括目할만한 擴張이다. 이는 1966年과 1970年間에 最終需要的 原始産業의 代替와 다른 産業에 比한 相對的 高度成長을 意味한다. 特히 製造業部門은 輸出需要的 增加에 힘입어 高度成長의 主導的 役割을 擔當하였고 製造業總指數는 1965年에서 1971년까지 3.7倍, 1973년까지는 5.2倍로 上昇하였다.

部門別로는 主로 輕工業部門이 그 比重이 크고 重化學工業比率은 아직도 改善의 餘地가 많은 實情이나 近年에 이르러 電氣機械器具 第一次金屬, 化學製品, 輸送用機械器具 等 重化學工業의 伸張은 括目할만하다. 1970年 産業機關表에 나타난 重化學工業部門의 自給自足度는 大部分의 部門에서 平均自給度를 下廻하며 同年의 貿易 赤字의 88%가 이 部門의 貿易逆調에서 起因하고 있다. 그러므로 現在 試圖하고 있는 70年代의 重化學工業育成政策은 過去 經濟成長의 趨移나 産業 및 工業構造의 脆弱性에 비추어 올바른 政策方向으로 論理的 歸正을 찾을 수 있다.

끝으로 1953年以後라는 比較的 짧은 時系列資料를 利用한 分析이기 때문에 S. Kuznets 教授가 試圖한 世界各國의 經濟成長의 長期分析과 平面的인 比較가 어려운 點이 없지 않으나 60年代의 成長이 持續한다는 樂觀論을 前提로 하여 比較하여 보면 우리나라 經濟成長과 産業構造變化의 速度가 60年代 日本과 自由中國을 除外하고는 그 類例을 찾아 볼 수 없을 程度로 急進的이다. 뿐만 아니라 動亂以後 50年代 經濟成長과 産業構造의 變化도 Kuznets 教授의 長期 分析을 基準하면 오늘날 西歐의 先進諸國이 걸어온 發展過程에 比較할 수 있을 程度 以上이니 鼓舞的이라 하겠다.